

사무엘상 7. 반환되는 하나님의 언약궤 (삼상 6 장 1-21 절)

들어가기

사무엘상 6 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왔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은 부셔지고,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그 곳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재앙으로 죽게 되자 어쩔 수없이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점술사들을 불러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낼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열게 되었고, 그 결과 먼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린 후에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운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린 후, 언약궤를 미리 준비된 암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 옮겨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두 암소가 끄는 수레는 이스라엘 진영의 레위 지파가 살던 '벰세메스' 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한 당시 벰세메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 중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궁금해 하며 열어봄으로 인해, 벰세메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 블레셋 지도자들의 고민 :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까? (1-9 절)

1) 블레셋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 주목 1. 하나님의 언약궤는 7 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 (1 절)

- ✧ 이스라엘 =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던 7 개월,
- ✧ 블레셋 =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난의 7 개월

➤ 주목 2.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누구?

-> 바로 블레셋의 신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외 우상을 섬기며 점치던 점술가들!

- ✧ 이것은 곧 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오히려 인정하고 깨달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당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어리석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닐까?
- ✧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 결국 문제와 상황을 더 심각하고 어렵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
- ✧ 성도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모든 삶의 원칙과 가치를 맞추고,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할 것!

2)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내린 3 가지 결정

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절)

- ✧ 속건제 = 타인의 권리나 재물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것을 회개하며 배상하기 위해 드리는 당시의 보편화된 희생 제사.

- ✧ 나름대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고자 고민했다는 사실!
- ✧ 그러나 선택한 형식은 너무나도 미신적인 우상 숭배의 형식을 따랐음!

②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의 제물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3-5 절)

- ✧ 금독종 = 자세한 모양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독한 부스럼 혹은 증기 모양을 형상화 한 것으로 추측.
- ✧ 금쥐 =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으로 학사들은 아마도 당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어떤 식으로든 쥐가 연관되었을 것이라 추측.

➤ 주목 3. 왜 이것들을 각각 다섯 개로 만들었을까?

4 절을 참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 블레셋을 대표하는 다섯 성읍 = 같은 재앙이 내림!
곧 지난 7 개월 동안 하나님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모든 성에 똑 같은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

➤ 주목 4. 이렇게 만든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

5 절,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

➤ 주목 5. 이렇게 해야 할 이유로 저들은 한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제시 하였다는 것!

6 절, - 출애굽의 10 가지 재앙을 떠올리며, 그 전에 빨리 항복하고, 돌려보내길 결정!..

한 역사학자의 코멘트

“자신이 역사를 통해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고, 설령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다 한들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분이시며,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는 간에 변함없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생각하기 1. 만약 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③ 젓먹이 송아지를 둔 암소 두 마리로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7-9 절)

- ✧ 젓먹이 송아지를 둔 암소 두 마리 = 동물의 모성 본능을 거부 = 하나님의 역사..
- ✧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한 것!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연으로 생각할 것인지? 를 놓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단순한 우연이나 혹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 블레셋을 떠난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이스라엘 진영 뵤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10-16 절)

1) 두 마리의 암소는 본능을 거스르며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하였습니다.

- >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자연을 거스르고, 그 어떤 본성과 본능도 이기게 하심을 기억!.
- > 나의 믿음은 과연 나의 본능도, 본성도, 감정도 이기게 하는 믿음인지? 돌아보자!

2) 뵤세메스는 어떤 곳인가?

- ✧ ‘뵤세메스’의 뜻은 ‘태양’
- ✧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살던 도시.. 에그론 동쪽 13km.. 예루살렘 서쪽 24km 지점..

✚ **생각하기 2. 그럼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

➤ **주목 6.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도착하자 뵤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의 나무를 파고, 암소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13-16 절)**

-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운반했던 수레는 더 이상은 다른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음..
- 암소들 역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된 것임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음.. (참고: 오직 번제에는 수컷만이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이 이유로 암컷도 사용됨!)

3)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레와 암소를 보면서 충성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암소들 = 젖먹이 송아지를 때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목적지에 이르렀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 수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까지 온전히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끝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뱀세메스의 축복이 불행으로! (19-21 절)

1) 불경건한 뱀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아 하나님의 재앙이 그곳에도 임하였습니다.

2)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 보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모두 (5 만) 70 명이었습니다.

19 절, “뱀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참고 : 엇갈린 학자들의 견해..

- ① 문자 그대로 5 만 70 명을 죽이셨다는 견해
 - ➔ 그러나 이것은 블레셋 전쟁에서 죽은 수 (삼상 4:2,10 : 3 만 4 천명) 보다 더 큰 숫자!
- ② 이 숫자는 필사자의 실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
 - 히브리 원문해석 방법에 의해 천명당 5 명씩 70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측..
 - ➔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음..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만약 인간이 인간의 허영심과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고 엄하게 대응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3)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뱀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뻐하여림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